2026년 4월 2일 | Global Asset Research

신흥국 전략

인도, 급한 불은 껐지만…

인도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근아 geunak@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국·이란 전쟁 지속,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 높은 인도 불확실성도 확대되는 중

미국·이란 전쟁이 긴장 고조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인도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도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약 90%에 달하며, 이 가운데 약 40~4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원유뿐 아니라 LPG의 55%, LNG의 30%가 호르무즈 봉쇄 리스크에 노출돼 있어 이번 충격은 인도의 에너지 전반에 걸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은 극단적인 공급 부족 우려 완화됐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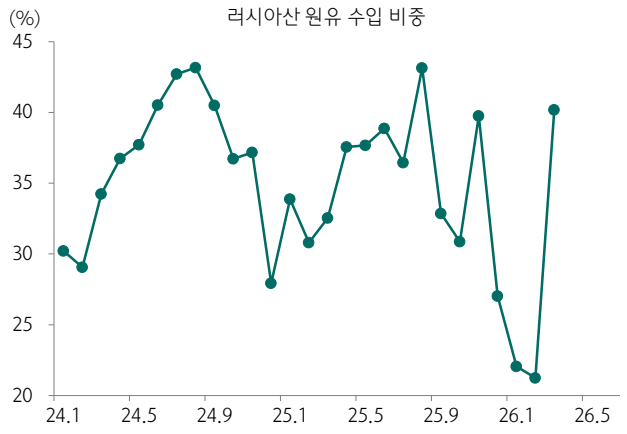
이 같은 구조적 취약성 탓에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인도 수급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현재로서는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면서 극단적인 공급 부족 우려는 다소 완화된 모습이다. 원유의 경우 조달선을 40여 개국 이상으로 넓히는 한편, 러시아산 원유 도입도 다시 확대하고 있다. 연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의식해 러시아산 원유 비중을 20% 수준까지 낮췄으나, 중동발 공급 차질이 본격화되자 재차 늘리기 시작했다. 이에 러시아산 원유 비중은 3월 들어 40% 안팎까지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며, 4월에도 추가 확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LPG 역시 최악의 국면은 일단 지나가고 있다. 3월 초 이후 국내 LPG 생산 가동률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면서 국내 수요의 약 40% 수준에 그쳤던 자국 생산 충당 비중도 약 55%까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러시아·호주 등으로부터 약 80만 톤의 대체 물량도 확보한 데 더해, 인도향 LPG 선박들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재개되는 점 또한 수급 안정 기대를 높이고 있다. 동시에 정부는 PNG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가구를 중심으로 LPG 중복 수요를 줄이는 구조적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일시적 해소일 뿐, 중동 지역 정상화 지연될 경우 수급 차질 언제든 발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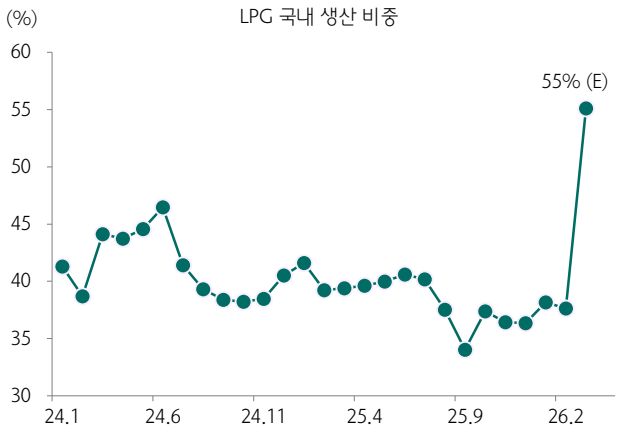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해소일 뿐, 전쟁이 지속되고 중동 지역 정상화가 지연될 경우 공급 차질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대체 물량 확보와 국내 증산을 통해 당장의 공급 충격은 일부 흡수하고 있지만, 이를 장기간 지속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수급 불안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수급 자체의 문제를 넘어 고유가가 이어질 경우 경상수지 악화, 루피 약세, 물가 상승 등 경제 전반의 부담도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고, 에너지 및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마진 압박 역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실적 둔화 우려와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며, 인도 증시 상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국면에서 인도 증시의 단기 방향성은 종전 또는 휴전 여부와 그에 따른 유가·환율 안정 여부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확실한 협상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뚜렷한 추세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간으로 판단된다. 양국 간 협상 진전 여부와 관련 뉴스플로우에 지속 주목한다.

도표1. 인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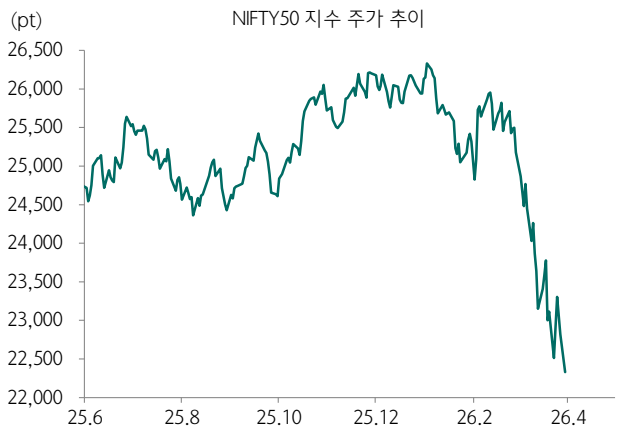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2. 인도 LPG 국내 생산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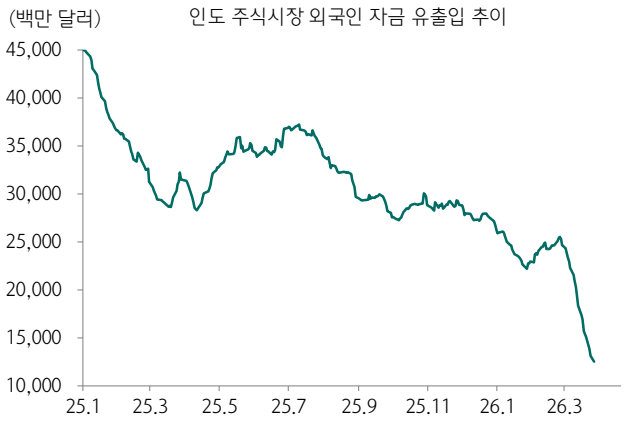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3. 인도 NIFTY50 지수 주가 추이



자료: CEIC, 하나증권

도표 4. 인도 증시 외국인 자금 유출입 추이



자료: CEIC, 하나증권